

지역 소식통

익산농민회,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전농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는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2017년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풍물놀이로 시작된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에 참여한 익산지역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 지키기 결의문을 낭독하고 풍년기원 고사를 지냈다.

익산시농민회 관계자는 이날 "농산물 시장 개방과 쌀값 폭락 등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이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LED 가로등 교체·보안

익산시가 저 전력 고효율 친환경 LED 도로조명으로 밝기를 환하게 만든다. 시는 올 5월까지 시내 3개 주요 도로변의 나트륨등 가로등 7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이번 LED 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신설은 기존 나트륨등보다 전기요금에 절반 가량 절약되고 조도는 더욱 향상되며 자연광에 매우 가까운 운전자들의 눈 피로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주역·기아차, 전북관광활성화 공동프로모션 협약 체결

코레일 전주역과 기아자동차 전북지역 본부는 지난 22일 기아차 전북본부에서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프로모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7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3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65일간) KTX 연계상품을 이용하여 전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주역에서 기아차의 신차 '뉴유모닝' 7대를 무상으로 이용할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안간힘

정현을 시장, 위델소재 신선호 대표와 면담... 추가 투자·증설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은 23일 오후 익산 제3산업단지 소재한 (주)위델소재 신선호 대표와 면담을 갖고 산업단지 추가 투자와 증설을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주)위델소재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제3단지 2만 8,776㎡ 부지에 40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 1만436㎡ 부지 분양계약 체결, 연면적 4,238㎡의 시설투자를 완료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현재 추가 증설과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주)위델

소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사업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위델소재와 같은 유망기업들의 선도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위델소재는 2009년 설립하여 고부가가치인 고순도 유기 OLED 재료합성·정제 및 반도체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향후에 화장품 원료사업

에도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3,4 산업단지 분양율이 평균 50%에 육박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황은희 교수 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 기탁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중) 농식품 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황은희 교수가 대학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2일 김도중 총장에게 직접 기금을 전달한 황은희 교수는 "평소 모교 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심하다가 미려하나마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한 김도중 총장은 "보내주신 정성이 학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잘 활용하겠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978년 원광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한 황은희 교수는 1983년 생활과학대학 교수로 부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익산시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초대 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사업장 방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는 제20회 임시회 회기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민원현장인 왕지광아와 민간 위탁기관인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추사허기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건강도시 익산,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방재대책본부 운영훈련' 개최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관계기관과 함께 '방재대책본부 운영훈련'을 23일 개최했다.

시뮬레이션 훈련으로는 연중 가장 큰 규모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군산시, 군산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상 시나리오 훈련이다.

훈련은 군산항 북방파제 남쪽 3.5km 해상에서 1500톤 유조선이 압초와 부딪치면서 실려 있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간 상황을 가정해 초기대응과

관계기관 공동작업 등 실제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류와 바람을 타고 유출된 기름 일부가 양식 어장과 해안가로 번지는 상황도 가상해 선박과 인력 투입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군산해양 경비정 서장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재년에 가까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오염사고에 대비해 발생 억제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훈련이 이뤄졌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방재에 나설 수 있는 민간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시민과 함께하는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 추진

시, 21개 기관·단체에 꽃 화분 배부

익산시는 시민이 직접 꽃을 식재하고 관리해 익산사랑 시민의식을 높이고,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각부서 및 읍·면·동 협조를 얻어 지난 3월 15일까지 초화류 신청을 받았다.

기관 및 단체, 학교, 음식점 군부대, 복지시설, 상가번영회 등 21개 단체에 팬지 등 봄꽃 약 5만본, 절화화분 등 꽃 화분 약 1,800개를 3월 22일부터 배부 및 식재토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계절별로 꽃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7월과 10월에도 초화류 16만본, 화분 1,00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80만본에 달하는 꽃을 시 양묘장에서 직접 길러 주요 교

통섬 및 가로화단, 가로화분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고 있다. 익산역 및 시청 주변 꽃거리 조성, 특색 있는 교통시설 만들기, 꽃향기를 설치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꽃을 배부 받은 학교 관계자는 "미래의 익산 주역인 아이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이들이 직접 꽃을 가꾸는 실습교육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시 도로공원과 관계자는 "꽃을 가꾸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식재하는 것보다 중요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지속적인 꽃 식재와 단체 등에 꽃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250세대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제외) 중에서 10년이 지나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주민의 자력 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5개 단지(공동주택)를 선정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바닥 포장 등 공용부분을 보수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1개 단지 당 2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 이상이다.

시 주택행정과 국철인 과장은 "1980년대에 공급된 연립주택의 노후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마다 순차적으로 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9개 단지에 5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펼쳤다.

/뉴스스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painting a star, buildings, and text: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